

노령출산에 관한 연구

한예영*, 정문희

*서울적십자병원 간호과, 한양대 간호학과

노령출산의 현황과 그에 관련될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의 파악으로 종합병원내 모자보건관리영역의 보건교육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1991년 1월 1일~1993년 12월 31일 3년 사이에 서울시내 모 공립 종합병원 에 출산을 목적으로 내원하였던 산모와 그 신생아의 임상 기록 269쌍을 자료로 하여 SPSS에 의하여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

1. 정상자연분만의 모성연령은 평균 33.76세였으며 제왕절개 등 분만의 모성연령은 평균 35.39세였다.
2. 모성측 위험요인은 분만형태, 태반 만출형태이며 신생아측 위험요인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3. 모성연령군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낸 출산력 변수는 임신수, 사산수, 현존 자녀수였다. 즉 모성연령 34세 이하군보다 35세 이상군에서 3변수 모두 경험빈도가 높다.
4. 신생아의 성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낸 출산력 변수는 임신수, 유산수, 현존 자녀수였다.
5. 모성연령군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낸 신생아 건강지표는 5분 APGAR뿐이었다. 즉 35세 이상 집단이 9.46으로 34세 이하집단의 9.72보다 낮았다.
6. 모성연령과 신생아 체중간에는 Pearson 상관계수 -0.10 의 역상관계가 나타

나 모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생아체중은 작아짐을 보여주었다.

7. 출산전에 신생아의 성을 확인한 사람은 1993년 분만대상자 67명중 67.2%인 45명이었고 기대한 성은 이들이 월등히 높은 73.1%나 되었으며 더욱이 출산심정이 섭섭하다는 경우가 34.3%로 높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노령출산이 모체 및 신생아측에 분만 위험요인이 잠재함에 불구하고 득남에 대한 기대가 노령출산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과 더불어 국민계도 차원에서 모자보건 관리영역에 노령출산을 위한 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